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8면	그날의 함성 다시 한번	1
강원도민일보	04면	"대한독립 만세"	1
江原日報	08면	"독립정신 계승해 강원자치도 새로운 100년 열자"	2
江原日報	01면	"규제로부터의 독립 만세 !" 강원자치도 울려퍼진 함성	3
江原日報	03면	하나, 둘, 셋 출발!	4
江原日報	03면	"강원 발전" 한마음 ... 여·야도 발맞췄다	5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소통·실천·신뢰받는 의정 강화”	6
江原日報	22면	강원FC, 흥개막전 제주와 1대1 무승부	7
강원도민일보	17면	화끈한 공격축구 변신 강원, 개막전 아쉬운 1-1 무승부	8
江原日報	11면	총선 출마자·단체장 복적	8
●●YTN	온라인	ELS에 50억 투자 공공재단...반토막 손실에 감사원 자료 요...	9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자치경찰위 신임 위원 윤곽 ... 전대양.최지봉 추천	10
江原日報	14면	"숙원사업 해결" 시민들 의지 다지며 봄맞이	11
江原日報	14면	동서고속도로 IC 도심 인근 관통 총력	11
江原日報	13면	꽃샘추위 이겨내고 화합의 힘찬 레이스	12
江原日報	13면	만세삼창 외치며 3·1절 의미 되새겨	12
江原日報	13면	참가자들 걷고 뛰며 즐거운 시간 만끽	13
江原日報	15면	국가정원 조성 염원 퍼포먼스 화제	13
강원도민일보	13면	"홍천 장애인 당당한 사회구성원 되도록 도움"	14
江原日報	온라인	배우 겸 가수 이동준, 강원자치도 홍보대사 위촉	15
江原日報	06면	'공룡 선거구' 피했지만 춘천을 단독 분구 실패	16
강원도민일보	12면	'기형적 구조' 강원대 삼척캠 앞 교차로 개선	16
강원도민일보	01면	공공의료 버랑 끝인데...강경투쟁 중심 선 강원의료계	17
강원도민일보	15면	철원지역 군사규제 완화 지역발전 기대감	17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시 재해위험 하천 대대적 정비	18
강원도민일보	14면	정선 캐릭터 '와와군' 관광객에 인기만점	18
江原日報	07면	전공의 업무복귀 극소수 ... 면허정지 초읽기	19

강원도민일보	16면	양양 하조대 인근 관광·휴양 결합 산단 추진	19
江原日報	10면	용문~홍천 광역철도 실현위해 질주	20
강원도민일보	13면	횡성 두곡문화복합단지에 미술관 세운다	20
강원도민일보	04면	결국 다 못 채운 강사...강원 늘봄학교 불안한 출발	21
강원도민일보	02면	올림픽 경기장 적자난 해법 찾을까	21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사과 전국적 대세 등극 30년 새 재배면적 3배	22
강원도민일보	04면	지난 겨울 3년내 가장 많은 눈·비... 3월에도 계속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교육특구 산업체 육성 관건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봄꽃 특수' 미리 준비해야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출구 없는 저출생, 지역 미래 뿌리째 흔들린다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총선 41일 전 선거구 확정, 올바른 투표할 수 있겠...	26

2024년 03월 04일 (월)

江原日報

종합 08면



그날의 함성 다시 한번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지난 1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준영 강원경찰청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박후성 육군 제2군단장, 최근중 광복회 도지부장, 김진호 춘천시장, 김경록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등 도민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종합 04면



“대한독립 만세”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지난 1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최근중 광복회 강원도지부장 및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종합 08면

“독립정신 계승해 강원자치도 새로운 100년 열자”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 애국지사 후손에 대통령 표창 전수
김진태 지사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 이어갈 것”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준영 강원경찰청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전종철 G1방송 대표, 김성하 KBS춘천방송 총국장, 박후성 육군 제2군단장, 최근중 광복회 도지부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김경록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원종화 TBN 한국교통방송 강원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씨앗을 뿌린 것이 3·1운동”이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외교가 빛을 발해 광복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최근중 광복회 도지부장은 강원지역 독립만세운동사를 낭독하면서 3·1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을 통한 애국심 고취를 강조했다. 또 애국지사 고(故)

김주갑님의 손녀 김윤자씨에게 대통령 표창이 전수됐으며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 회원인 정준호, 남규설, 추상호, 최지란, 함영택씨 등 5명에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독창한 양지연 학생과 도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애국가를 불러 의미를 더했다. 3·1절 기념행사에 이어 춘천시청 시민의 종각에서는 ‘시민의 종 타종식’이 열렸다.

한편 김진태 지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최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갖은 난관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거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농지개혁과 문맹퇴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완성하고 변영의 토대를 굳건히 이뤘다”고 치켜세웠다.

이와 함께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고 이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밑거름이 됐다. 영화보다 더 극적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종합 01면

“규제로부터의 독립 만세!”

강원자치도 울려퍼진 함성

3·1절 105주년 건강달리기 ... 18개 시·군서 성황리 열려

▶관련기사 2·5·9·16·21~23면

3·1운동 105주년과 강원특별자치도 1주년을 기념하는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제25회 시·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지난 1일 강원일보사 주최로 강원자치도 18개 시·군 전역에서 일제히 열렸다.

3·1절 건강달리기는 매년 새봄을 알리고 한 해의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전통의 레이스다.

이날 도 전역에서 레이스에 참가한 5만여명의 도민은 105년 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쳤던 순국선열들의 애국과 독립의 정신을 기렸다.

특히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시 가다듬고 지난 1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특별자치도 출범 1년 앞두고
기관·단체·시민 5만명 참가
지역 발전 위한 각오 재다짐

성공 개최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강원일보 본사 앞 춘천 메인 행사장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준영 강원경찰청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박정규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김경록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권오복 신한은행 강원본부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이병철 강원

지방조달청장, 이건설 도노인회장,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 이재한 한국예총 도연합회장, 최근중 광복회 도지부장, 최선근 도육상연맹 회장, 박광구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 지역본부장, 홍용석 춘천세무서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이기대 강원장조경제 혁신센터장,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 정명자 한민족통일여성 강원협의회장, 남미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전순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장, 김선미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 최찬희 강원미래여성포럼 회장, 이해규 춘천연극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사회 03면



하나, 둘, 셋 출발! 지난 1일 강원일보가 주최한 3·1절 기념 건강달리기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출발을 알리는 총을 쏘고 있다. 김남덕기자 ndkim@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사회 03면

“강원 발전” 한마음 ... 여·아도 발맞췔다

도내 정치권 인사 대거 참여

“4·10총선 지역발전 동력 삼자”

모처럼 갈등 접고 한목소리

강원 정치권이 다가오는 4·10 총선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고 다짐하며 질주를 펼쳤다.

3·1절 105주년 기념 제25회 건강달리기대회가 열린 지난 1일 오후 춘천 강원일보사 앞 행사장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권혁열 도의장,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허영(춘천갑)·노용호(비례)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등 여야 정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강원 발전을 위한 발을 맞췔다. 최근 주요 쟁점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강원 정치권은 이날만큼은 지역 발전을 앞당기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민의힘 춘천갑 당원협의회는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기원 현수막을 준비해 유치 성공을 기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지역위원회는 ‘대한독립만세’, ‘독도는 우리땅’ 등의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총자로 나선 한기호 의원은 “201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달리기 대회에 참석하는데 매년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 함께 화합의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전했다.

이들과 함께 5km를 달린 허영 의원은 “레이스를 하면서 일제의 탄압에 당당히 만세를 외치신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생각했다”며 “3·1절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경제의 난관을 이겨내고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역시 5km를 완주한 노용호 의원은 “춘천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달릴 수 있어 즐겁고 뿌듯했다”며 “국제스케이트장 춘천시 유치를 통해 춘천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지난달 29일 여야가 극적으로 선거구 확정안에 합의한 직후 열리면서, 도내 총선 출마자들과 각 정당 관계자들이 현행 선거구 체제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재웅(더민주·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도내에서 3+1석이

라는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 총선 승리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달린 박기영(국민의힘·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도 “총선 필승과 도민을 위한 의정을 다짐하면서 5km 달리기를 완주했다”고 말했다.

이현정·원선영기자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사회 03면

도의회 “소통·실천·신뢰받는 의정 강화”

도의원·사무처 직원들 역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3·1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열린 달리기 축제에 동참해 도민들과 함께 달렸다.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쉽지 않았지만 다짐했다.

3·1절 105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강원일보사 앞에서 열린 제25회 시·군민 건강달리기대회에는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양숙희·이승진 도의원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 호흡했다.

권혁열 도의장 등은 이날 시총자

로 단상에 올라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과 양숙희 도의원은 5km를 완주하며 평소 갖고뒀던 체력을 뽐냈다. 도의회 사무처 정종찬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대회에서 시민들과 호흡했다.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된 대회에도 지역 도의원들이 참석, 주민들과 만나며 의회 슬로건에 걸맞게 ‘소통하는 도의회’를 실천했다.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장은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표정이 밝고 건강해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둔 갑진년이 더욱 기대됐다”며 “도의회도 현장에서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도민 곁에서 더 호흡하며 희망찬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2024년 03월 04일 (월)

스포츠 22면

江原日報

강원FC, 홈개막전 제주와 1대1 무승부

10일 광주 원정 첫 승 도전



강원FC가 2024 시즌 첫 경기를 아쉬운 무승부로 마쳤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지난 2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홈 개막전을 맞아 구단주인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개막을 선언했다.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이 시축을 맡았다.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박후성 제2군단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 강원FC 홍보대사인 가수 김흥국 등도 경기장을 찾았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6,021명의 관중이 입장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강원은 첫 공격부터 득점에 성공하며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김이석이 슈팅한 공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높게 뜬 뒤 문전으로 떨어졌고, 혼전 상황에서 이상헌이 슈팅을 시도해 골문을 갈랐다. 경기 시작 32초 만이었다.

강원은 전반 44분 일격을 허용했다. 제주의 코너킥 상황에서 높게 뜬 공을 이탈로가 터닝슛으로 연결하며 강원의 골망을 흔들었다. 강원은 후반 28분 이상헌이 득점에 성공했지만 온 필드 리뷰 결과 비토르 가브리

엘의 반칙으로 판정되면서 아쉽게 골이 취소됐다. 결국 경기는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윤정환 감독은 "파이널 서드(경기를 세 구역으로 나뉘었을 때 가장 위쪽 공격 구역)에 들어갔을 때 찬스를

더 잡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은 10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2라운드 광주FC전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스포츠 17면

화끈한 공격축구 변신 강원, 개막전 아쉬운 1-1 무승부

이상현 제주 상대 32초만에 득점
후반 슈팅 파울 선언 멀티골 무산
프로 데뷔 양민혁 빠른 돌파 눈길



강원FC의 올 시즌 K리그1 개막전이 강원FC 윤정환 감독과 제주 유나이티드 김학범 감독(강릉출신)의 스승-제자 '특자도 매치'가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다. 다만 강원FC가 경기 시작 32초 만에 득점에 성공하며 눈길을 끌었고 화끈한 공격축구를 펼치며 올 시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예고해 축구팬들을 설레게 했다.

강원FC는 2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 개막전을 치렀다. 이날 홈 개막전에는 시축을 맡은 구단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권혁열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박후성 제2군단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 가수 김흥국 등이 경기장을 찾았다.

경기 시작 전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경기장에 6021명의 관중이 몰리며 열정적인 응원을



지난 2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1리그 강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강원FC 갈레고 선수가 돌파하고 김정호

보냈다.

이날 경기는 지난 시즌 중 부임한 윤정환 감독의 온전한 첫 시즌이자 윤 감독의 색을 입고 나서는 강원의 리그 첫 경기였고 제주 또한 오랜만에 K리그에 복귀한 김학범 감독의 복귀전이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강원은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새로 영입한 이상현과 외국인 에이

스가브리엘을 최전방에 배치했고,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양민혁과 함께 갈레고, 김강국, 김이석이 미드필더라인을 구성했다. 강투지, 윤석영, 이기혁, 황문기가 포백, 윤키퍼 이광연이 선발 출전했다.

윤정환 감독은 지난 시즌 라인을 내려 박스 공간을 없게 만들었다면 이날 경기는 완전히 달랐다. 수비적인 강원

이 아닌 공격적인 축구로 제주를 압박하며 전반전 초반의 흐름을 가져왔다.

경기 시작 첫 공격부터 강원이 득점에 성공했다. 양민혁이 빠른 반응속도를 살려 드리블로 왼쪽 측면을 돌파했고 중원에 있던 김이석에게 패스했다. 김이석은 골대를 향해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수비를 맞고 높게 뜨며 문전앞에 공이 떨어졌고, 선수들이 뒤엉켜 있

는 상황에 이상현이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을 날려 제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시작 32초 만에 나온 골이었다. 하지만 전반 43분 오른쪽 코너킥 박스 밖으로 흘러나온 공을 제주 아탈로가 발리슛으로 연결해 강원의 골망을 가르면서 경기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전 72분, 강원이 추가골을 획득하는 듯했다. 크로스 이후 골대 근처로 떨어진 공을 이상현이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골대를 향해 슈팅을 날렸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역전에 성공하는 듯 싶었으나 제주가 온필드 리부팅 신청했다. 판독 결과 제주 김동준 윙키퍼가 공을 쳐내는 과정에서 가브리엘과 부딪히며 차징 파울이 선언돼 이상현의 멀티골이 무산됐다. 결국 후반전에는 득점 없이 종료 휘슬이 울렸다.

최근 3경기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양팀은 또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고 경기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강원은 제주를 상대로 통산전적 12승 11무 11패를 기록했다.

이날 프로 데뷔전을 치른 양민혁은 "상대 선수들의 압박이나 경기 템포가 많이 달랐지만 전지훈련에서 형들과 발을 맞추며 자신감이 생겼다"며 "공격적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드리블을 하다 보니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올 시즌 공격 포인트 5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호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1면

총선 출마자·단체장 북적

◇횡성 행사장에는 유상범 국회의원과 허필홍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 총선 출마자들과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표한상 부의장, 김은숙·백오인·박승남·유병화·정운현 군의원, 이창진 민주평통 횡성군협의회장, 진기엽 석탄공사 감사, 함종국 도정협력관, 박순걸 횡성소방서장, 최종웅 NH농협 횡성군지부장, 엄경익 횡성축협조합장, 마기성 횡성농협조합장, 최순석 둔내농협조합, 한상윤 횡성향교전교, 이재성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과 소통. 【횡성】



2024년 03월 03일 (일)

사회

ELS에 50억 투자 공공재단...반토막 손실에 감사원 자료 요구



[앵커]

주가 연계 증권, 이른바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분들이 많은데요.

공공 재단 역시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문화재단이 ELS에 수십억 기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 환 기사입니다.

[기자]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문화재단입니다.

문화 예술 단체와 예술인 창작 지원, 그리고 재단 재정사립을 위해 기금을 운용합니다.

세금, 출연금으로 쌓은 기금 액수는 217억 원.

인정적인 예금에 91억 원, 보험사에 76억 원 넣었습니다.

나머지 50억 원은 좀 담았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른바 주가 연계 증권, ELS였는데, 원금 비보상형이었습니다.

물론 잘 나갈 때는 제법 수익을 봤습니다.

2015년부터 6~7년간 9억 원 정도 불렀습니다.

문제는 2021년 재예치를 통해 투자한 3년 만기 상품.

홍콩 주가지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에 10억 원씩 5차례 넣었는데 이게 손실이 큼니다.

10억 원 투자했다 지난 1월 환급받은 상품은 반 토막 아래인 4억 4,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억 원도 4월에 하나, 6월에 둘, 7월 마지막까지 차례대로 민기가 도래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수십억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 (안정적인) 보통예금에 넣으면 이자도 안 나오는데, 한 톨이라도 출연금 아끼려면 좀 적극적인 자산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조인 때문에 그걸(ELS 투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위험도를 알렸고 투기성 상품인 만큼 투자 결정 당시부터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나.

재예치 식선 열린 재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 투지라는 우려부터 ELS 투지에 나선 다른 출연 기관이 없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 관리위원회 운영 사체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재단 실무진이 기금을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었고, 회의에서 나온 문제 제기 역시 자문 정도일 뿐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신태 / 강원도지사 : 나중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까지 벌였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당시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임기를 더 갱신하지 않고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문제를 처음 제기한 후 지난해 말 강원도 자체 감사가 진행됐고, 최근 감사원 역시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등 사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당시 ELS 투자를 결정한 재단 경영진에 대해 배임 여부 등을 따져 보고 있습니다.

YTN 자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기네경



2024년 02월 29일 (목)

사회

江原日報

강원자치경찰위 신임 위원 윤곽 ... 전대양.최지붕 추천

강원도의의회 2명 추천 확정
29일 후보추천위 첫 회의

—



전대양 교수 최지붕 전 서장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2기 위원 구성 절차가 본격화(본보 16일자 4면 보도)된 가운데 각 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 2명 추천 권한을 가진 도의회는 2기 위원으로 전대양(65)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최지붕(64) 전 양구경찰서장을 선정했다.

이들은 경찰법에 명시된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임명이 확정된다. 경찰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치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

전체 7명인 자치경찰위원 중 2명이 선정된 가운데 나머지 5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넘겨 받아 지난해 10월 취임한 조명수(70) 위원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나머지 4명은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도교육감이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씩 추천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5개 기관(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찰청, 춘천지법,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명씩 참여해 구성된다. 이들은 5개 기관이 각각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최종적으로 2명을 선정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 방식 등을 논의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다음 달 8일까지 후보 추천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점에 2기 위원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4면

江原日報

“숙원사업 해결” 시민들 의지 다지며 봄맞이

선열들 희생정신 기리며 의미 있는 시간

동해시 3·1절 105주년 기념 제25회 동해시민 건강걷기대회가 영상 1도 내외의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1,200여명이 운집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지난 1일 동해 전천둔치 특설무대(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는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시의장, 김윤재 시체육회장, 김기하·최재석·유순옥 도의원, 민귀화·정동수·안성준·이창수·김향정 시의원, 심영섭 강원경제자유

구역청장, 박광서 동해교육장, 김종근 NH농협 동해시지부장,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수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 후 출발한 시민들은 막 움이 트는 전천의 봄날을 만끽했다.

심규언 시장은 “3·1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기리고 희생정신을 기억한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해=전명록기자



◇3·1절 105주년 기념 제25회 동해시민 건강걷기대회가 지난 1일 동해 전천둔치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려 1,200여명이 운집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출발 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4면

江原日報

동서고속도로 IC 도심 인근 관통 총력

태백시 제25회 태백시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지난 1일 태백시청 광장에서 1,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시의장, 이한영·문관현 도의원, 김진환 태백경찰서장, 이경숙 시의회 부의장, 김재욱·홍지영 시의원, 박정숙 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정혁 강원일보 태백지사장 등 기관·단체장이 대거 참여했다. 이상호 시장은 “교통오

지 태백의 발전을 위해 동서고속도로 IC 태백 도심 인근 관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특히 이동·청소년에게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비를 매월 지원하는 꿈탄탄바우처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일보사는 대회를 맞아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대체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고재창 시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태백=김광희기자



◇강원일보사 주최 제25회 태백시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지난 1일 태백시청 광장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3면

꽃샘추위 이겨내고 화합의 힘찬 레이스

체감기온 영하 날씨에도 완주 성공

속초시 3·1절 105주년 기념 제25회 속초시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지난 1일 영랑호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이병선 속초시장, 김명길 속초시의장 및 시의원, 강정호·원미희 도의원, 박경서 속초경찰서장, 김재석 속초소방서장, 조명수 속초시체육회장, 탁승열 NH농협 속초시지부장, 김종명 속초시노인회장, 김덕용 속초시비영회장, 시민 등 500

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흥선미 생활체육지도자의 구령에 맞춰 움츠렸던 몸을 풀 뒤 체감기온 영하의 날씨 속에서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염원을 안고 코스를 완주했다.

이병선 시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한 시민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속초=권원근기자



◇지난 1일 영랑호 일원에서 열린 '3·1절 105주년 기념 제25회 속초시민 건강달리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주어진 코스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3면

만세삼창 외치며 3·1절 의미 되새겨

인제군 새봄을 맞아 인제군민들이 지역 발전과 건강을 염원하며 힘차게 달렸다.

인제군체육회와 강원일보 인제지사가 주최·주관한 3·1절 기념 인제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지난 1일 인제체육관을 출발, 인제읍 시가지 3.5km를 돌아오는 코스로 열렸다.

개회식에서는 인제군원로회가 태극기를 나눠주고 참가자들과 만세 삼창을 외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출발 10여분 만에 3군단 703특공연대에 근무하는 유민수 중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행사장에는 최상기 군수와 엄운순 도의원, 김도형·신동성·김재규 군의원, 이기호 인제군체육회장, 이수인 인제교육장, 함장길 NH농협 인제군지부장, 변인태 인제군육상연맹 회장, 이만철 인제문화원장, 방효정 인제군원로회장, 이영자 인제군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인제=김보경기자



◇인제군체육회와 강원일보 인제지사가 주최·주관한 '3·1절 105주년 기념 인제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지난 1일 인제체육관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출발선을 나서고 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3면

참가자들 걷고 뛰며 즐거운 시간 만끽

고성군 “꽃샘추위 이겨내고 새봄 힘차게 달렸습니다.”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고성군체육회가 주관한 제25회 고성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지난 1일 고성종합체육관 및 간성을 시가지 일원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박상규 고성군체육회장, 김창권 NH농협고성군지부장 및 주민, 마라톤 동호인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는 고성종합체육관에서 105주년 3·1절을 맞아 만세 삼창 이후 석미아파트~북천교 삼거리~간성터미널~NH농협 고성군지부~선거관리위원회~고성중·고입구~고성종합체육관으로 돌아오는 5km 구간에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종합운동장에서 몸풀기 운동을 한 뒤 시종과 함께 출발해 달리거나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고성=김천열기자



◇강원일보사 주최 고성군체육회 주관 '제25회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지난 1일 고성종합체육관 및 간성을 시가지 일원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5면

국가정원 조성 염원 퍼포먼스 화제

정선군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염원하는 3·1절 기념 제25회 정선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지난 1일 정선공설운동장 일원에서 1,100여명의 정선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지정을 염원하는 대형 패널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3·1절 기념 만세 삼창 구호를 통해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위한 군민들의 염원을 한목소리에 담았고, 대회장 주변에는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국내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 유치를 지원하는 기념품까지 제공하는 등 군민들의 참여 열기를 독려했다. 또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배왕섭·김영덕·송수옥·전흥표·조현화·전광표 군의원, 정연원 정선경찰서장, 최영수 정선소방서장 등의 기관·단체장도 주민과 함께 완주했다.

정선=김영석기자



◇3·1절 기념 제25회 정선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지난 1일 정선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려 1,100여명의 주민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염원하는 레이스를 펼쳤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3면

“홍천 장애인 당당한 사회구성원 되도록 도움”

군 장애인·장애인 가족 주장대회

“다시 달릴 수 없다 해도, 내 삶을 달려야겠다.”

홍천군장애인부모회 홍천군지회(지부장 안은영)가 처음으로 개최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기주장대회 ‘나의 목소리를 들려줘’가 최근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예비사회적기업 파랑새, 해맑음사회적협동조합,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홍천군지부,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홍천군지부, 무궁화홍천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등이 참여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박영록 군의원, 최이경 군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유상범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 대회 개최를 축하

했다. 홍천군장애인부모회음악동아리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총 8명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발표가 이어졌다. 강지수 씨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렵고, 최저임금도 미약하다”며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취업기회를 많이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김은주 씨는 “어렸을 때 육상부를 할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돼 달리기를 못하게 되면서 절망에 빠졌다. ‘다시 달릴 수 없다 해도, 내 삶을 달려야겠다’는 의지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됐고, 현재는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전사로 일하며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고 발표했다. 안은영 지부장은 “장애인의 자기권리를 다양한 주제로 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있는 목소리가 장애인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승현

2024년 03월 03일 (일)

江原日報

정치

배우 겸 가수 이동준, 강원자치도 홍보대사 위촉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도청에서 배우 이동준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배우 겸 가수 이동준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청에서 배우 이동준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동준 홍보대사 위촉은 태권도 선후배 사이인 원제용 도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이동준은 초등학교 시절 태권도를 시작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동, 세계선수권(1983년, 1985년), 아시안선수권(1984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불암 배우의 권유로 연기 인생을 시작해 ‘적색시대’, ‘야망의 세월’, ‘서울무지개’, ‘신기생년’ 등 여러 작품에서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진태 지사는 “바쁘신 중에도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대가 크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준 홍보대사는 “새로운 강원과 함께 하게 되어 저도 설레고 기쁘다”며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본격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함께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년 03월 04일 (월)

江原日報

종합 06면

‘공룡 선거구’ 피했지만 춘천을 단독 분구 실패

총선 코앞서 강원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합의

6개 시·군 묶임 위기 처하자 ‘차라리 누더기가 낫다’ 여론 높아져
춘천 6개 읍·면·동을 철원·화천·양구에 붙인 기형 선거구도 적용
확정위 “향후에는 농산어촌 현실 고려해 입법적 보완 필요할 것”

4·10 총선에서 강원지역 8개 선거구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6개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 탄생은 피했지만 춘천을 중심으로 한 ‘누더기 선거구’는 여전히 그대로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행 선거구 유지에 총선 시계 정상궤도=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4·10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확정안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원지역은 21대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현행 8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최근 여야 논의에서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확정안이 급부상하며 6개 시·군이 묶이는 ‘공룡 선거구’ 탄

생 위기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현행 유지로 합의를 이뤘다.

현행 선거구 유지로 여야의 총선 시계는 일단 정상궤도에 올랐다.

■‘누더기가 낫다?’... 기형적 분구 문제 여전=당장 눈앞에 급한 불은 겠지만 강원지역의 선거구 문제는 여전히 여전하다. 춘천의 6개 읍·면·동을 철원과 화천, 양구에 붙여 만든 기형적 선거구가 이번 총선에도 적용되어서다.

현행법상 시·군의 일부 분할은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4년 전 선거구 확정 당시 강원도에 배정된 8개 의석만으로는 ‘공룡선거구’ 탄생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교육지책으로 춘천에 시·군 일부 분할 허용 특례를 적용, 현재의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단독 분구를 추진했던 수부도시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민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에 분노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누더기 선거구’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가장 중요한 강원 의석 확대에 실패했고,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탓에 선거를 40여일 남겨 두고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질 위기에 놓이자 “차라리 현행대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도내 정치권 인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확정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 ‘공룡 선거구’를 받아들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입법적 보완 바람직... 22대 총선에서 풀어야=근원적 해결은 입법적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지 않고, 강원과 같은 농촌지역이 일정 수준의 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도록 한 정치권 합의를 반영해 거대 선거구를 해소했지만 향후에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2면

강원도민일보

‘기형적 구조’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교차로 개선

삼척시 이달부터 110억원 투입
국도 7호선 사고위험 저감 기대
내년 도민체전 개최전 완공 목표

수십년동안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국도 7호선 교차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사업이 본격화된다.

삼척시는 이달부터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앞둔 내년 6월 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국도 7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설기술 자문 및 심의 등 행정절차에 이어 실시계획 등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최근 강원대 삼척캠퍼스와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국도 7호선 교차로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추진되는 개선방안은 삼척캠퍼스 앞 교차로에서 삼척해변방면으로 이어지는 고가도로와 지하 통로 박스 앞에 회전 교차로를 개설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인근 동

부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원활한 국도 진입·출입을 돕기 위해 별도의 감응식 신호체계를 구축한다.

또 종합운동장 앞 국도에 감응식 신호체계를 갖춘 진입·출입로를 구축함으로써 동해 또는 울진 방향 통행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국도 상 횡단보도 대신 지하보도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교차로는 평면도로와 지하 통로 박스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의 복합 교차로로, 이 곳이 익숙하지 않은 초행길 운전자들은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몰라 헤매기 일쑤다.

울진방면으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해당 교차로에서 도로 반대편인 삼척해변 또는 종합운동장으로 가려면 교차로 진입 이전에 미리 삼척캠퍼스

쪽으로 방향을 튼 뒤 지하 통로 박스를 통해야 하고, 반대로 동해방면 운전자가 삼척캠퍼스로 가려면 일찌감치 국도에서 내려 복잡한 지하 통로 박스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해당 교차로 지하 통로 박스 앞 구간의 경우 각기 다른 진입도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운전자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시 관계자는 “국도가 개설된 1980년 당시 기형적 구조로 교차로가 조성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적지 않았으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내년 도민체전 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 아래 3월부터 본격 공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종합 01면

공공의료 벼랑 끝인데...강경투쟁 중심 선 강원의료계

도 의료계 투쟁 수위 전국 최고



강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갈등 속에서 정부와 '강대강' 대처의 중심에 섰다. 강원도내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업률도 90%를 훌쩍 넘어선다. 반면 '공공의료'의 붕괴를 제갈하는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강원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8명 복귀 2.2% 전국 최저

강원대 의대생 휴학률 92.3%

경찰 도의사회장 자택 압수수색

■ 의협 비대위원장 정부 투쟁 주도

강원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 당장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택우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각종 집회 등을 이끌고 있고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동맹휴학을 선언한 곳도 한림대의대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복귀 의사를 표명한 도내 전공의는 강릉아산병원 8명 뿐이다. 도가 9개 수련병원 390명을 대상

으로 집계한 사직서 제출 전공의 360명의 2.2%에 불과하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앞서 강원대 의대 학생 234명 중 216명(92.3%)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연세대 원주의대 재학생들도 동맹휴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도 강원도 의사회 회원 등 약 350명이 상경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며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고뇌가 담긴 외침"이라고 했다.

■ 도민 "공공의료 붕괴" 개선 시급

강원 의료계의 이 같은 흐름은 지역

이 처한 현실과 대비된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강릉의료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다 보니 현재 과가 운영되지 않고 있고, 영월의료원도 신경과와 신경외과의 경우에는 장기간 휴진이 이어지고 있다. 속초의료원 역시 10건 이상가 정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올렸음

에도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영월의료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다"고 했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도 "가정의학과 의 경우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 넘게 계속 채용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모집하지 못했다"고 했다.

■ 정부 압수수색·출국금지 '맞붙'

정부의 맞붙 역시 만만치 않다. 경찰은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김택우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출국금지까지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1일 오전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김 회장 등의 혐의는 각각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실시했다.

김정호·박재혁 ▶ 관련 기사 5·8면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5면

철원지역 군사규제 완화 지역발전 기대감

지난달 말 군사 보호구역 해제

학저수지·울이리 등 301만㎡

주민 재산권 행사·건축 허용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철원군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과 울이리·화지리·오터리 일대가 지난 2월 29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

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철원군은 관할부대인 육군 6사단 측과 지역주민 재산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요청,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에 포함됐다. 해제된 지역은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 및 울이리·화지리·오터리 일대의 총면적 300만 9780㎡에 해당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군(軍) 협의 없이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군사지역 규제와 군부대 해제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통해 나후된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현종 군수는 "그동안 관할부대

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철원지역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1면

강릉시 재해위험 하천 대대적 정비

시, 정동진천·우암천·말미천
133억원 투입 교량설치 등 대비
태풍피해 13개소 조기복구도

강릉시가 올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133억여원을
들여 지방하천인 정동진천을 비롯해

소하천인 주문진 우암천과 내곡동~
구정면 간말미천 등 3개 하천을 정비
한다.

정동진천은 총 사업비 217억여원
을 들여 길이 1.2km에 교량 2개소 등
을 설치하는 공사다. 시는 우선 올해
15억41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
한다. 또 우암천에 40여억원, 말미천
에 5억원 등을 들여 정비 사업을 본격
화한다.

지난해 태풍 '카눈'의 피해지역에

도 사업을 추진한다.

강릉시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도마천과 어단천, 남대천, 연곡
천, 임곡천 등 지방하천과 소하천인
강동면 장작골 등 13곳에 대해 사업
비 7억원을 들여 조기 수해복구에 나
선다.

이어 기존 20곳의 소하천과 7곳의
지방하천 등에 대해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시설보수와 퇴적토 준설 등 하천
시설 유지관리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오는 6월말까
지 사업을 신속 집행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신현도 시 건설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변형된 하천을 재정비하고 퇴
적토를 준설, 하천 폭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마을과 주택 인근에
위치한 소하천 정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4면

정선 캐릭터 '와와군' 관광객에 인기만점

굿즈 판매 지역경제 도움

국민고향정선의 대표 캐릭터 '와와
군'이 관광지마다 개성넘치는 모습
을 뽐내며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와와군' 캐릭터는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정선의 깊은 숲에서 순
수하고 맑은 동심을 지키는 숲속 요
정 다섯 캐릭터로 제작됐다.

와와군 캐릭터는 군민과 관광객에
게 사랑받고 있는 '와와버스'를 비롯
해 카드형 상품권 '와와페이' (가맹점
1926곳, 가입자 8000여명)에 삽입
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와와군 캐
릭터를 활용해 인형, 텀블러, USB,
마우스 패드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
을 개발해 정선군 종합관광안내소를
비롯한 지역 곳곳 기념품점에서 판
매, 지난해 3320개를 판매해 1768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지난해 개장한 가리왕산 케이
블카 알파인 플라자 1층에 와와군 캐
릭터 판매공간을 조성해 2894개,
2586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지
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아라리촌, 정암사, 삼탄아트



가리왕산 케이블카 알파인 플라자에 전
시된 와와군 캐릭터 인형

마인, 화암동굴, 나전역, 민동산역 등
주요 관광지 18곳에 와와군 캐릭터
인형을 배치해 친근한 관광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로미지안 가든, 파크로
쉬리조트 앤 웰니스 로쉬 카페, 디저트
와와, 감탄카페 등 디지털 관광주민
증혜택업소 홍보에도 캐릭터를 활용
하고 있다. 김영환 관광과장은 "여행
캐릭터 와와군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
츠를 개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OneSourceMultiUse) 전략으로 지
역 홍보와 친근한 국민고향정선의 이
미지를 널리 알리게 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선군 관광 브랜드 경쟁
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사회 07면

전공의 업무복귀 극소수 ... 면허정지 초읽기

정부 제시 복귀 시한 지나 ...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종료되자마자 의료계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를 시작했다.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미미한 가운데 의사협회 반대위는 전국 의사총결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의료 공백 첫 강제수사 '복귀 미미' = 경찰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의 김택우(강원도의사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5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직후 이뤄진 수사였다.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자 5명 중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도내 362명중 복귀 10여명 불과 정부 '사법적 처벌' 진행도 예고 경찰, 위협 간부 압수수색 나서 의료계 서울서 집결 총결기대회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지역 총 9개 수련병원에서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10여명으로 이달 전공의 362명의 2.8%에 불과했다.

■행정 절차 착수 의료계 강력 반발 = 정부의 행정·사법 절차 착수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 반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총결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은 강원지역 350여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만여명이 집결했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1일 압수수색 직후에도 성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1일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명을 내고 "정부는 13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공식 송달했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순차적으로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 처분,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검도 강원경찰청과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신속·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예산 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하림·박서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6면

양양 하조대 인근 관광·휴양 결합 산단 추진

전국 80여개 업체 입주 희망 관광휴양주거 기능 단지 검토 군 '현재 타당성 용역 진행 중'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 양양 하조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연어산업'과 연계, 현북면 중광정리 육상연어양식

단지 인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8년 분양을 목표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군이 최근 입주기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80여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평균 3000㎡ 정도의 공간 부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도로와 공원 등 법적 기반시설과 함께 주거시설과 문화

기능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68만㎡ 규모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진과정에서 이들 시설 배치를 통한 총 계획면적을 산정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는 동해고속도로 하조대IC와 인접한 임야와 농지 등을 포함해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한 후 경제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타당성조사 단계로 기본계획 용역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계획 신청, 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형근 군 전략사업기획팀장은 "기존 농공단지가 포화 상태인데다 육상연어양식단지가 조성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산업단지가 필요해 관광휴양주거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으로 위치, 단지 규모, 소요사업비 등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훈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0면

江原日報

용문~홍천 광역철도 실현위해 질주

홍천군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3·1절 제105주년 기념 제25회 홍천군민 건강달리기·걷기대회가 지난 1일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대에서 열렸다.

창간 79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와 홍천군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고 홍천군, 홍천군의회, 홍천군체육회 등이 후원한 올해 대회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홍천군민건강달리기·걷기대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홍천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참가



◇3·1절 제105주년 기념 제25회 홍천군민 건강달리기·걷기대회가 지난 1일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현수막 앞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자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사업 현실화와 조기착공을 염원하며 달렸다.

올해 대회에는 지역의 달리기 동아리와 걷기 동아리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1945년 창간한 강원일보와 홍천군은 그동안 함께 협력하며 서로의 발전을 위해 상생해 왔다”며 “홍천 철도 구축 현실화에도 공동 노력해 반드시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철도를

비롯한 홍천지역 현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영록 홍천군의장은 “주민의 의회 역시 지역 최대 현안인 용문~홍천 철도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홍천=하위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지역 13면

횡성 두곡문화복합단지에 미술관 세운다

군, 민간투자 유치 협약 체결
수장고·정원·휴게시설 등 조성
내년 착공 2026년 11월 개관

횡성군 우천면 두곡문화복합단지 내 미술관 건립이 확정됐다.

군은 지난 29일 군청 접견실에서

김명기 군수와 민간투자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천면 두곡문화복합단지 내 횡성미술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매계약 및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곡문화복합단지 6만4046㎡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자해 미술관과 수장고, 정원 및 휴게시설 등 관람객편의

시설을 갖춘 미술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올해 말까지 미술관 설립을 위한 건축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해 2026년 11월 개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협약에 앞서 대규모 재원을 동원할 수 있으면서 전시가 가능한 유명 미술품 보유하고 있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

한 민간투자자를 찾기위해 노력해 왔다.

군은 횡성미술관이 건립되면 두곡문화복합단지에 건립 중인 서울시문화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연수원 분원, 횡성 목재문화체험장과 함께 클러스터를 이뤄 횡성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철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종합 04면

결국 다 못 채운 강사...강원 늘봄학교 불안한 출발

내일부터 운영 84곳 중 4곳 0명
강사 채용 '허덕' 책임 전가 비판
도교육청 "현장 정착 적극 지원"

강원도내 늘봄학교가 결국 필요한 기간
제교사를 모두 채우지 못한 채 시작하
게 됐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맡을 외
부강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
안정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늘봄
학교 운영에 돌입한다.

올해 1학기에는 8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가운데 해당 업무
를 전담할 기간제교사는 80명 (3월 기
준)이 채용됐다. 도교육청은 추가 공고
를 통해 4명을 더 구하겠다고는 입장이나
당장 4개 초교는 기간제교사가 없다. 앞
서 도교육청이 진행한 1차 수요조사 결
과 초교 1학년 학생의 59.9%가 늘봄을
신청했다.

늘봄학교에서 학생들 수업을 맡을 외
부강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84개
학교가 일제히 강사를 모집하다 보니
강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학교
도 발생하고 있다. 원주의 한 초교 교장

은 "12월이나 1월부터 채용을 했으면
모를까, 개학을 코앞에 두고 시간 강사
를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는 지난달 29일에서야 면접을 진행하
고 간신히 개학 직전에 강사를 구했다.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가 늘봄학교
수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춘
천의 A초교는 늘봄학교에서 제공한 프
로그램을 맡을 강사를 채용하지 못했
다. 결국 학교측은 담임들에게 오후 수
업을 요구했다.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B교사 (32)는 "처음에는 1학년 담임들
에게 부탁이 들어왔는데, 이를 수용하
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까 봐 거절했다

니 이번에는 2학년 담임들에게 프로그
램을 맡으라고 한다"고 전했다. 일부 초
교는 개학 직전까지도 외부강사를 구하
지 못해 여전히 공고를 진행 중인 것으
로 확인됐다.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춘천 C초 교
장은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만 보내
줬다. 세부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채용
등은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
다. 해당 학교는 당초 개학 후 일주일
이 지난 3월 11일부터 늘봄을 시작할 예정
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3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춘천 D초 교장은 "늘
봄을 진행할 공간이 없어 1학년 교실을
부득이하게 쓰게 됐다. 기간제로 오신
교사가 중등 자격증 소지자다. 수업 준
비에 다른 교사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4일 오후 춘천 석사
초를 방문해 늘봄학교 추진 상황을 점
검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 살펴볼 계획이다. 신 교육감은 3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정책에 따
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
봄학교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종합 02면

올림픽 경기장 적자난 해법 찾을까

연간 위탁관리비 80억원 지출
6일 운영 개선 용역 최종 보고
도, 무상 양여·대체 활용 모색

강원도가 소유한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매년 80억원 규모의 적자를 떠안으며
열악한 강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장 수익 증대 방안을 비롯해 경
기장 국가 무상 양여 및 국비 지원, 타 시
설 대체 등을 포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강원도가 감당해야 할 예
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
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6일 나온
다. 도와 문체부는 동계스포츠 5개 연
맹과 함께 이날 도청 2층사에서 '동계
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번 용역의 핵심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
될지 주목된다.

강원도 소유 올림픽 경기장은 총 6곳
(스피드스케이팅·하키·슬라이딩·바
이애슬론·스키점프·크로스컨트리)
으로, 강원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도는 공사에 매년 60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공사는 위탁
수수료와 함께 경기장 운영 수익금 20
억원을 경기장 보수·관리에 투입하고
있다. 결국, 경기장 위탁 및 관리에만
연간 8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구조다.

강원도는 당장, 재정 부담을 크게 우
려하고 있다. 당초 도는 강원특별법 3
차 개정을 통해 올림픽 경기장의 국가
무상 양여를 추진해왔으나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잣대를 적용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
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 올림픽 경기장의 정부·지자체 무상

양여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아 특례 적용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수익 다변화를 통한
재정 절감안도 모색하고 있다. 동계올
림픽 경기장 시설은 국가대표팀 훈련
장이나 전국대회 경기장, 문화행사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경기장
결빙 등 유지 관리 비용과 비교해볼때
시설 대관만으로 얻는 수익금은 현저
히 낮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용
역에서도 올림픽 경기장 활용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경기장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방안도 도출될 수 있
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동계
올림픽 경기장의 운영 수지를 지속적
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수익다변화
와 대체 시설 활용 등의 방안과 함께 강
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무상 양여 방안을 정부 측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경제 06면

강원사과 전국적 대세 등극 30년 새 재배면적 3배

지난해 도내 사과재배 1679ha

기후변화 대구경북 주산지 옛말

2033년 전국 재배 2900ha 감소

지난해 사과 생산이 30% 급감하면서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2033년까지 사과 재배 면적이 8.6%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3만3800ha에

서 2033년 3만900ha로 연평균 1%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33년까지 9년 동안 사과 재배면적 2900ha (8.6%)가 줄어드는 것으로, 축구장 (0.714ha) 4000개가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성목 (다 자란 나무) 면적은 품종 갱신, 노령화에 따른 폐원, 타 품목 전환 등으로 지난해 2만4700ha에서 2033년 2만2800ha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목 (어린 나무) 면적은 8000ha 수준으로 1000ha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 면적 감소 탓에 사과 생산량은

올해 50만2000t에서 2033년 48만5000t 내외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예상했다. 점진적인 생산량 감소로 1인당 사과 (후지 상품) 소비량은 올해 9.7kg에서 2033년 9.5kg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기상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만4000t이었다.

사과는 현재 국내 재배 과일 중 생산액 비중이 1위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70년 후 사과는 전국적인 과일의 지위를 잃을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탓에 강원도

이남에서는 재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과' 하면 대구·경북과 충남을 떠올리는 것도 이미 옛말이 됐다. 기후변화 탓에 사과 산지는 자꾸 북상 중이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11도의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과일이다. 일교차가 커야 열매가 잘 익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기존의 주요 산지였던 경북이나 충남 지역에서는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1993년 3만6021

ha에서 2023년 기준 2만151ha로 30년 새 44% 줄었다. 반면 강원도는 같은 기간 483ha에서 1679ha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강원도에서는 사과 재배 조건이 갖춰지자 사과 농사에 뛰어드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양구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은 "10년 전만 해도 강원도에서 사과 농사는 엄두도 못냈다. 하지만 이제 양구사과가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나무를 심어도 수확하기까지 몇 년은 걸리기 때문에 일찍 시작한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김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종합 04면

지난 겨울 3년내 가장 많은 눈·비...3월에도 계속

내일까지 산지 최대 8cm 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오는 5일까지 최대 8cm의 눈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겨울 (2023년 12월~2024년 2월)이 최근 3년 겨울 동안 가장 많은 강수 (눈·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도에 눈 또는 비가 온 횟수는 총 25.4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겨울 (2022년 12월~2023년 2월) 13회와 비교했을 때 12회 가량 (95.3%) 눈 또는 비가 온 횟수가 많은 셈이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내린 눈·비 횟수는 11.8회로 이보다 더 적다. 특히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강원도내 겨울철 (12월~다음 해 2월) 연평균 강수 일수는 19.2일인데, 최근 두 차례 겨울 동안 이에 미치지 못했다가 이번 겨울 부족 눈과 비가 잦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눈은 3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기상청은 오는 5일까지 산지에 최대 8cm, 영동 일대에는 최대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산지와 영동 일부 지역은 눈이 아닌 비가 내려 최대 20mm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산지를 제외한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남풍과 함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상승,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사설/칼럼 19면

교육특구 산업체 육성 관건

-첨단생태계 구축돼야 청년 유출 막을 수 있어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춘천·원주·화천이 들었습니다. 40건 신청 중 31건이 선정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6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강원 3곳 등 4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원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과 산업체를 연계한 취업완성형 산학연계 사업은 적어 아쉬움이 큼니다.

시범사업지 춘천은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 강원애니메이션고를 애니·방송분야협약형 특성화고교로,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원주는 공공기관이 집약된 혁신도시에서의 부족한 보육, 교육, 문화, 실습 여건을 개선해 돌봄 공백해소와 인재양성, 취업에 이르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화천은 교육, 돌봄, 주거 패키지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마을 조성이 핵심입니다. 무상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온종일 돌봄, 대학교 무상교육, 글로벌 무상연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체로 보육 등 주거환경 조성에 무게가 실리고 구체적인 산업 분야 교육 연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경북 상주는 이차전지산업과 연계해 이차전지연구소 설립 및 재직자 직무 심화이

차전지 인력 양성 등 첨단산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사천·고성은 우주항공분야로 특화된 교육발전특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우수대학으로 육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 구미시는 금오공대에 연구인력확대를 위한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구축 및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1년간 사회진입 프로그램인 시립형 학교 모델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선대에 첨단반도체 융합전공 신설을 비롯한 에너지, 관광 분야에서 지역 대학과 특화산업간 교육과정 연계가 핵심입니다.

곧 이번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갖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중앙정부는 재정과 제도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강원 인구 급감의 가장 취약한 지점은 취업기에 도래한 청년 인구의 급격한 유출입니다. 수도권 대학보다 취업이 불리한 결과 지역 대학 기피 현상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모델이 창출돼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04일 (월)

사설/칼럼 19면

‘봄꽃 특수’ 미리 준비해야

-이달 중순부터 개화, 관련 행사 개최 기대

입춘과 우수를 지나, 경칩을 앞두고 차츰 봄기운이 전해집니다. 이달 중순부터 봄꽃이 잇따라 개화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는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즐비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봄 행락객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화기는 여름 피서철이나 단풍철 못지않은 관광특수를 창출합니다. 특히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경포 등 유명 관광지에는 인파가 행렬을 이룹니다. 지역 경기도 활기를 띠습니다. 도내 지자체는 개화기에 맞춰 흥행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꽃을 주제로 한 축제를 마련하고, 꽃길 걷기 등 행사를 개최해 ‘봄 관광 특수’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 도내에서는 3월 중순부터 생강나무·진달래·벚나무 등의 개화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에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꽃피는 시기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내 생강나무 개화 시기는 춘천 강원도립화목원에서 오는 3월 20일, 인제 점봉산에서 오는 3월 30일로 전망됩니다. 또 진달래의 개화는 춘천 강원도립화목원에서 오는 3월 28일, 인제 점봉산에

서 오는 4월 7일로 예상됩니다. 벚꽃류의 개화 시기는 춘천 강원도립화목원에서 오는 4월 12일로 예상됩니다.

꽃은 종류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피어 흥행을 예고합니다. 지역에서는 5~6월 장미축제와 6월 꽃양귀비 축제 등 다양한 꽃 축제가 방문객의 발길을 부릅니다. 지난해 5월 열린 삼척 장미 축제에는 5일 동안 3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동해안 대표 꽃 축제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했습니다. 원주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에도 인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 정원으로 거듭난 철원군 고석정 꽃밭은 한 달 동안 운영돼 매년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꽃 축제는 강원도의 중요한 관광자산입니다. 관광객들은 행사장뿐 아니라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인근 연계 관광지를 방문하고 전통시장과 상가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미 알려진 꽃명소와 축제 개최 지역은 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꽃구경 명소를 알린다면, 새로운 꽃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흥미로운 이벤트를 개최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사설/칼럼 19면

출구 없는 저출생, 지역 미래 뿌리째 흔들린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놀라울 정도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2년 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16년 이후 한 번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은 '세계 꼴찌'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의 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2016년까지 40만명을 넘던 연간 출생아는 2020년 30만명, 2022년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첫 아

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로 전년(32.8세)보다 0.2세 많아졌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제일 높은 것이다. 2021년 기준 OECD 국

가들의 첫 아이 출산의 평균 나이는 29.7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3.3세 높다. 35세 이상 산모 비율도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6.3%를 기록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7,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역대 최소 기록으로 도내 인구가 5년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강원자치도 내 출생아 수는 6,700명으로 전년(7,278명)보다 578명(-7.9%) 줄어 2016년부터 8년째 역대 최소 출생 기록을 이어 갔으며 사망자 수는 1만4,200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2022년(1만5,086명)보다 886명 감소했지만,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런 추세

가 계속되면 지역의 미래는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통해 예산을 투입하며 많은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 원인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거, 교육, 고용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출생률 반등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 변화에 의해 기대될 수밖에 없다. 우

선 정부와 자치단체, 국회, 그리고 기업이 새로운 발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들은 법과 제도를 다루면서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

도 지난해 사상 첫 7,000명 아래로 떨어져
주거, 교육, 고용 여건 획기적 개선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이다. 자원 배분의 틀을 바꾸고 교육과 취업, 기업 인사 제도와 노동 관련 법제를 모두 출산 친화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저출생 타개를 위한 궁극적 해법은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이 높다. 일자리가 많은 기업도 시도 예외 없이 그렇다.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중요한 투자다. 도달 가능한 미래를 보여 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5,000만 인구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생산성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노동·자본·기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만이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산업과 기업,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04일 (월)

사설/칼럼 19면

총선 41일 전 선거구 확정, 올바른 투표할 수 있겠나

제22대 총선에서 강원지역 8개 선거구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개에서 254개로 늘어난 반면, 비례는 47석에서 46석으로 축소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10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은 21대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원주갑, 원주을, 강릉,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8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자칫 6개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뻔했지만 여야의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지면서 종전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선거구 확정은 선거 1년 전에 마쳐야 한다. 따라서 총선 투표일을 불과 41일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공천 작업이 중반을 넘고 나서야 간신히 합의에 이른 선거구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이었으나, 전북 1석과 비례 1석을 맞바꾸는 영똥한 거래가 성사됐다. 확정위 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1석을 지켜 냈고, 국민의힘

은 ‘쌍특검법’ 재표결 및 부결을 이끌어 내 긴 논란을 종식시키는 이득을 챙겼다. 국회가 밀실 타협으로 위법과 불공정을 스스로 조장한 꼴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비례의석만 애꿎게 줄인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러 조사에서 비례의석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인된 바 있다. 지역구 확대, 비례 축소가 시대 흐름과 민심에 반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 선거에서도 지역 민심과는 상관없이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 도내 선거구를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는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 일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구 확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흥정거리가 될 소지를 차단하거나, 아예 선관위 또는 별도 독립기구에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 후보가 자신이 출마할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고, 총선 직전까지 유권자는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나. 낚장 선거구 획정이 참정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연유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확정 고의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